

가마솥 더위 14일째... 폭염기록 돌파 초읽기

광주·전남 내달 4일까지 계속 1994년 19일 기록 깨질 듯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에 광주·전남이 연일 찜통 더위 속에 있다. 광주 폭염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해 무려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25일 기상청자료개발포털에 따르면 광주의 가장 긴 폭염 연속일 수는 역대급 무

더위로 손꼽히는 1994년(7월8일~7월26일) 19일이다. 이어 2012년(7월24일~8월9일) 17일, 2013년(8월6일~8월22일) 17일, 1942년(7월10일~7월25일) 16일을 기록했다. 폭염지속 일수는 25일 현재 14일로 역대 5위 기록이며 이런 추세라면 1994년 폭염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의 중기예보(10일)를 보면 다음달 4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은 북태평양고

기압 영향을 받아 낮 최고 기온이 34도 안팎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최고기온 평균(32.4도)은 역대 두번째로 높다. 이는 가장 더웠던 1994년 7월의 최고기온 평균(34.9)에 육박하는 수치로, 역대 두번째로 최고 기온 평균이 높았던 1978년과 같은 기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8월 초가

연중 가장 더운 시기라는 점과 최근 중기예보를 따를 때 당분간 비도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광주·전남 전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 이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코끼리가 조련사가 뿌려주는 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무더위와 사투... 동물들도 버겁다

우치동물원 호랑이·코끼리 헉헉 얼음간식 만들고 온도 낮추기

25일 방문한 광주시 우치공원 동물원의 동물들은 피약별에 힘겨워 하는 모습이었다. 반달가슴곰 4마리는 수조에 몸을 담고 고개만 빼꼼 내민 채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벵골호랑이 '아이 러브' '기아' 삼남매는 방사장 안 그늘에 누워 끈적 끈적 도 안했다.

동물원 측은 이날 동물들의 원기회복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했다. 육식·초식 습성

에 맞춰 수박·닭 등과 영양제를 넣어 얼린 얼음(가로 1m·세로 50cm·두께 30cm)을 동물들에게 나눠줬다. 노미현 동물복지팀장은 "폭염에 힘들어하는 동물들을 위해 이달 초부터 얼음을 방사장에 넣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기온은 30도에 육박했다. 동물들은 방사장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지만 항상 22도를 맞춰주고 있는 내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육사들이 얼음 간식을 넣어주자 그때서야 한결같은 표정을 띠었다. 반달가슴곰은 얼음에 얼골부터 문질렀다. 한참 얼음을 붙들고 있던 반달곰은 얼

음이 녹아 안에 들어있던 사과가 밖으로 나오자 조금씩 맛을 봤다. 같은 시간, 벵골호랑이 사육장에는 닭고기를 통째로 넣은 얼음이 투입됐다. 그늘에서 잠 자던 호랑이들은 급세 관심을 보이며 활기 시작했다. 사육사들은 검은색과 흰색 얼룩꼬리를 가진 알락꼬리여우원숭이에게는 작은 체격에 맞춰 종이컵에 얼린 얼음을 줬다. 얼음을 가장 반긴 건 아시아코끼리 모녀 붕이(21살)와 우리(8살)였다. 사육사가 복숭아·수박·단호박을 넣고 얼린 얼음덩이를 넣어주자 발로 밟아 깨뜨린 뒤 먹이만 빼먹는 영리한 모습이었다.

폭염은 사육사들에게도 곤욕이다. 동물 특별 관리 뿐 아니라 평소보다 출근시간을 한시간 앞당겨 기온이 오르기 전 방사장 청소를 끝마치고 있다. 해가 가장 뜨거운 오후 2~3시에는 코끼리·호랑이 등 방사장 안 동물들을 내실로 들여보내기 위해 진땀을 빼기도 한다. 더위에 탈진한 동물이 없는지 틈틈이 살피는 일은 일상이 됐다. 김재창 사육사는 "아직까지 동물들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힘든 여름이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뜨기	05:37	달뜨기	18:34
해지기	19:41	달지기	04:01

이어지는 폭염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26/36	보성	구름많음	23/35
목포	맑음	26/35	순천	구름많음	26/36
여수	맑음	26/34	영광	맑음	26/35
나주	구름많음	25/36	진도	맑음	26/34
완도	맑음	26/34	전주	맑음	26/35
구례	구름많음	24/36	군산	맑음	26/33
강진	맑음	25/35	남원	맑음	25/35
해남	맑음	25/35	흑산도	맑음	25/30
장성	구름많음	25/3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	남서~서	0.5
남부	면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	서~북서	0.5
서부	면바다(동) 남~남서	0.5~1.0	서~북서	0.5~1.0
서부	면바다(서) 남~남서	0.5~1.5	남~남서	0.5~1.5

◇생활지수

- 경고
- 매우 높음
-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55	01:31
여수	18:45	13:17
	02:23	08:04
	14:08	20:54

◇주간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8/1(수)	2(목)
☀	☀	☀	☀	☀	☀	☀
26/36	26/36	26/34	25/34	25/35	25/35	25/35

9월 10일부터 대입 원서접수... 4년제 76% 수시선발

2019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9월 10일 시작된다. 전국 4년제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76% 이상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책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25일 발표했다. 2019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478명이다. 199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이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0~14일, 각 대학은 이 기간에 사흘 이상씩 접수한다. 학생들은 수시모집에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12월 14일까지 발표하고, 합격자 등록은 12월 17~19일 사흘간 하게 된다. 복수 합격자는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감률 경찰청장 1호 정책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경찰이 몰카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전담 대응기구를 설치한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과 전담수사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 취임한 민감률 신임 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첫 주요 정책이다. 민청장은 영암 출신으로 신북고와 경찰대(4기)를 졸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와 관련해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총괄·조정할 추진단이 조만간 신설된다. 단정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의 여성 전문가를 채용하고, 총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해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청 특별수사팀은 20개팀 139명으로, 여성 수사관을 50%까지 확보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배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동배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세배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